아브라함의 약속에 나타난 선교적 사명

Mission Task in Abrahamic Promise (Gen 12:2-3)

신 득 일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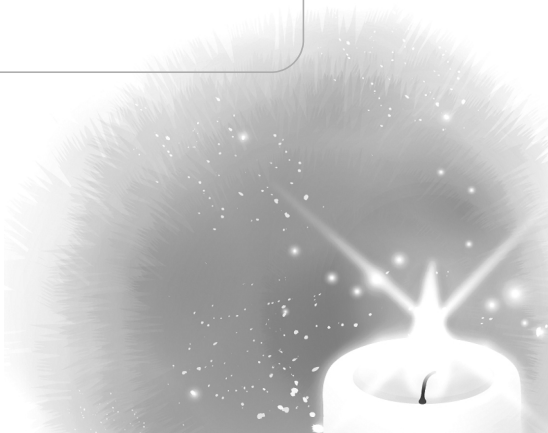
목 차

1. 서언 | 137

2. 번역과 개요 | 138

3. 주석적 설명 | 141
   a. 큰 민족 | 141
   b. 복 | 143
      1) 큰 이름
      2) 복의 통로
      3) 확대된 범위의 복의 통로

4. 결론 | 149



요약

아브라함의 약속에 나타난 선교적 사명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창세기와 성경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선교와 관련된 약속의 내용은 '큰 민족'과 '복'이란 말에서 두드러진다. 옛 언약시대에는 큰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에 동참하는 자들로 구성되지만 새 언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신다는 말은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말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시대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Mission Task in Abrahamic Promise (Gen 12:2-3)

주요어

아브라함, 약속, 큰 민족, 복, 저주

Abstract

Mission Task in Abrahamic Promise (Gen 12:2-3)

Prof. Dr. Deuk-Il Shin

The promise given to Abraham is pivotal in the whole Bilbe as well as Genesis. It is a great turning point in God's redemptive history. The content concerning mission in of this promise is highlighted in the terms, 'a great nation' and 'blessing' which is repeated five times. The great nation consists of Abraham's descendants and people who attend the covenant of God in the period of the old covenant, while it is made up of people who confess Jesus as their savior in the period of the new covenant. Eschatologically the nation means the church of Christ which is spiritual seed of Abraham. The word that God will bless the world through the church indicates that the church shall serve as agent for all nations to return to the Lord and to enter a new relationship with him. The promise that all nations on the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Abraham is a strong message that the church should fulfill its mission task in each generation.

Keywords | Abraham, promise, a great nation, blessing, curse

1. 서언

구약에 선교에 대한 명령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질문에서 의도하는 선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만일 그것이 신약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을 받은 선교사가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라면, 그런 선교는 구약에서 명령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1]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려한다면 구약에도 선교에 대한 암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종말론적인 비전가운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볼 때(시 96:9; 사 51:5 등) 구약은 구속이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구약의 선교에 대해서 말할 때 대부분의 선교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을 많이 언급한다.[2] 물론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사역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해할 만 하다. 사실 그 부름이 선교와 관련된다면 그것은 선교를 위한 시초의 준비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있게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구체적인

---

1) D.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3), 17.

2) Cf. 방동섭, 『선교없이 교회 없습니다』(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155-158; Wright는 이 약속을 비중있게 다루지만 본문주석을 통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선명하게 드러내지는 못한 것 같다. C.J.H. Wright, *The Mission of God* (Downers Grove, Illinois: IVP Academic, 2006), 200-21.

언급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소명'이라는 문맥에서 본문의 강조점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보다는 약속에 더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3) 그래서 본고에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성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이 약속이 그리고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의 선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필자는 계시역사적 관점에서 본문을 다룰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독자중심해석이 선교개념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선교적 해석학'은 지양한다.4) 왜냐하면 '선교적 해석학'은 구약의 모든 본문을 선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로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교회가 수행해야할 교회의 선교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번역과 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본문상의 문제는 별로 없다. 그래서 마소라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5)

---

3) C. Westermann, *Genesis*, BKA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166.

4) D.J. Hesselgrave, A Missionary Hermeneutic: Understanding Scripture in the Light of World Mi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10 no 1 Ja 1993), 17-20.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선교사 하나님'(Missionary God)"과 같은 표현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방법론은 직분으로서 선교사와 선교의 내용인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의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5) וְאֶגְדַּל־שְׁמֶךָ, qal + 대격 + 전치사 לְ의 형식에서 전치사 לְ는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상태를 뜻한다. R.J. Williams, *Hebrew Syntax*: An Outlin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1976), §278.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6]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7]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경멸하는 자를[8]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9]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대해서 주어진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계시역사의 관점에서 이 약속은 구속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된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과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한 민족을 계획하셨다. 이것은 이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한 민족에 한정시키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준다는 내용은 이전에도 언급되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존과 인류번성과 관련된 자연계의 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창 9).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창조세계에 대한 복보다

---

6) Sarna는 이 문장("네게 복을 주리라")을 따로 분리해서 독자적인 복으로 본다. 그는 이 복을 신명기 7:13-15에 근거를 두고 물질적 번영으로 이해했다. N.M. Sarna,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89. 그러나 이 문장을 다른 복의 내용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7) 개역성경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문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틀린 번역이다. 이 명령형은 앞 문장의 청원법이 계속되는 것으로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F.E. König, *Historisch-Kritisches Lehrgebäudeder hebräischen Sprach* III (Leipzig: Nachdruck Hildesheim, 1979), § 203; P. Joü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II, translated and revised by T. Muraoka (Rom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1), §116 h.

8) 사마리아 사본은 논리적인 일치를 위해서 מקלליך (너를 경멸하는 자들)라고 복수형을 썼다. 그렇지만 그것이 일관성을 유지해야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9) *bārak*의 니팔형은 구약에서 세 번밖에 쓰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동일한 약속의 내용이다(창 12:3; 18:18; 28:14).

더 큰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10)]

고대 근동 사람들의 복에 대한 개념은 능력을 부여받는 것으로 본다. 즉 생식과 풍요, 번영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복이라고 생각했다. 고대 근동의 한 부분이었던 이스라엘도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즉 복은 삶을 영위하고 향상시키며, 수확과 자손의 번성과 성취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을 충족시키는 힘이다.[11)] 그러나 그런 복의 내용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갖는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에 달려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나타난 복은 죽음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래한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결국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독론적인 성격을 지닌다.[12)]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나타난 복은 이전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계시역사에서 새롭게 도입된 이 복의 개념과 '큰 민족'이란 표현의 신학적으로 잘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의 약속에 나타난 선교적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10) R. Bauckham, *Bible and Mission*: Christian Witness in a Postmodern Worl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3), 35.

11) Friedrich Horst, *Segen und Segenshandlungen in der Bibel, in Gottes Recht*, Theologische Bücherei (München: Chr. Kaiser, 1961), 194-7; S. Mowinckel, *Religion und Kult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3), 64-5. 복의 어원적인 뜻인 '무릎,' '무릎을 꿇다'는 원래 복이 우월한 존재로 부터 오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

12) Wright, *The Mission of God*, 220.

3. 주석적 설명

a. 큰 민족

우선 큰 민족이란 백성의 수가 많은 민족적 집단을 뜻한다.[13]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언어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정치적 집단을 말한다.[14] 그러나 이 민족은 창세기 10장에 언급된 칠십 민족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성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노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실로 엄청난 내용을 담고있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문제였다(히 11:1).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했다(롬 4:17).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셨다. 혈혈단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큰 민족이 형성되었다(사 51:4). 이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고,[15]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

13) '민족'으로 번역된גוֹי는 '백성'으로 번역된עַם과는 다르다. 전자는 대체로 지역의 전체 인구를 가리키고 후자는 혈연관계를 강조한다. L. Koeher, W. Baumgartner, M.E.J. Richardson and J. Stamm,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HALOT* (Leiden: E.J. Brill, 1999), 182.

14) G.J. Wenham, *Genesis 1 – 15,*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Incorporated, 1998), 275.

15) Weisman은 족장들의 약속을 두 종류의 자료가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야웨문서와 엘로힘문서인데 보다 오래된 엘로힘 약속은 정치와 법률적인 요소가 없는 지파 단위의 민족을 가리키고 야웨 약속은 국가적 차원의 민족을 가리킨다고 한다. Z. Weisman, National Consciousness in the Patriarchal Promise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1 (1985), 55-73. 그러나 자손들에게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나타

교회가 건설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이란 말은 단순한 혈통이나 정치적 집단이란 개념을 뛰어넘어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닌다.[16] 아브라함은 단순한 이스라엘 족장이 아니라 우주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요, 교회의 뿌리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9). 새 언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17]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을 향해서 경고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마 3:9).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사실은 그 아비는 진리를 쫓아내는 마귀라고 하셨다(요 8).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큰 민족의 백성이다. 모든 성도가 큰 민족의 구성원이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큰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이 민족 구성의 성격을 볼 때 구약시대에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할 임무가 있었다(출 19:6). 이스라엘이 종말에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데서 선교적 임무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옛 언약시대에는 이 민족이 선교에 있어서는 예비단계에 있었다. 구약에서는 선교가 어디까지나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난 민족은 지파나 왕국과 같이 국가단위의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16) J.W. Dumbrell, *The Faith of Israel*: A Theological Surve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2), 28.

17)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에 8:17).

b. 복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핵심단어는 '복'이다. 이 짧은 문구에 복이란 말이 다섯 번 나온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 "너는 복이 될 것이라" ...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점진적으로 확산된다.

1) 큰 이름

앞에서 나열한 복의 내용에서 빠진 것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2b)는 것이다.[18] 사실 이것도 내용상 복을 증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큰 이름과 큰 민족은 함께 가기 때문이다.[19]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려고 하신다. 자신의 나라와 집안을 떠남으로써 지연과 혈연관계를 정리하고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훗날에 그가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20]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명성이

---

18) Jenkins는 이름과 관련된 약속의 요소가 특별히 야웨기자의 전통에 사용되었고, 그것은 원역사와 족장들의 이야기와 시나이 전승 간의 편집적 그리고 신학적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A.K. Jenkins, A Great Name: Genesis 12:2 and the editing of the Pentateuc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0 (1978), 41-57. 그렇지만 이 견해는 오경이 전승의 수집물이라는 전제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19) Westermann, *Genesis*, 173.

20) 외경 Jubilee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이름이 갈대아의 온 땅에서 창대하게 되었다"고 한다(Jub 11:22). J.H. Charlesworth,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and the New Testament*, Volume 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79.

높다는 말은 그 사람이 유명해 진다는 말이다(창 6:4).[21]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곧 아브라함 자신이 창대케 되는 것이다. 그가 큰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부여하신 높은 위치를 가리킨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했다(창 23:6).[22] 역사상 수많은 영웅과 열왕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에 영예가 돌아가도록 돌보셨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성도는 앞으로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아버지라고 하며, 그의 위대한 이름을 부르며 그와 교제하게 될 것이다(마 8:11).

이렇게 그의 이름은 시공간을 초월해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는 이름을 받았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별과 같은 이름, "하나님의 친구"이다(약 2:23; 대하 20:7; 사 41:8). 이 보다 더 영화로운 이름은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통해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는 조상을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름이 남아있겠는가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으로 약속을 이루셨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다음에 나오는데 순서상 그 이유가 있어 보인다. 아브라함의 복은 결코 개인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고 그 민족과 관련된 것이다. 신학적 의미로 본다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가 누리는 복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도,

---

21) W.H. Gispen, *Genesis* II, Commentaar op het Oude Testament (Kampen: Kok, 1974), .

22) Ruprecht는 전승사적인 입장에 근거를 두고 본문을 고대근동 문헌의 유사한 표현을 찾아서 약속에 언급된 '큰 백성,' '큰 이름'과 관련된 복은 왕국시대 초기에 성취되었다고 본다. 특히 '큰 이름'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에게 해당한다고 한다. E. Ruprecht, Der traditionsgeschichtlichen Hintergrund der einzelnen Elemente von Genesis XII 2-3, *Vetus Testamentum* XXIX4 (1979), 444-464.

그가 받은 복도 항상 교회와 관련된 것이다. 그의 이름은 교회의 복음전파를 통해서 더 널리 알려져서 더 크게 될 것이다.

2) 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큰 이름과 관련된 복의 성격이 점차 드러난다. 그것은 그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개역성경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2c)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명령형으로서 문자적으로 "복이 되라"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23] 그래서 문법적으로 앞의 청원법을 계속 연결시켜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로 번역해야 한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이 된다는 뜻이다.[24] 이것을 물질적 번영이란 차원에서 본다면 야곱에게 허락된 복이 라반에게 미치는 것과 요셉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와 애굽에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채널이 된다. 그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많은 사람을 위한 복이 되어야 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3절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복을 주고 너를 경멸하는 자를[25]

---

23) Skinner는 이 동사를 הָיֶהוְ 로 본문을 수정해서 그 부분을 "그것(그의 이름)이 복이 될 것이다"라고 번역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J. Skinner, Genesis, ICC (Edinburgh: T.&T. Clark, 1976), 244,

24) A.G. Fruchtenbaum, *The Book of Genesis*, Ariel's Bible commentary (San Antonio, TX: Ariel Ministries, 2008), 242.

25) KJV의 "that curseth thee"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는 '가볍다'를 의미하는 קלל의 피엘형으로서 '경멸하다' 또는 '굴욕을 주다'란 뜻이고 '축복하다'(ברך)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영예롭게하다'(כבד)의 반대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이 부분은 민수기 24:9과는 히브리어 동사가 다르다는 말이다.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하는 자들'은 복수로 쓰였고, '경멸하는 자'는 단수로 쓰인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26] 특히 "너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는 말은 마소라 사본이 필사상 오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주'가 '경멸'보다 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적이 아브라함에게 끼친 해악보다는 그들이 당하는 진노가 더 크다는 말이다.[27] 결국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의미가 된다.[28] 하나님의 행위에 중립은 없다. 오직 복 또는 저주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내리는 기준으로 삼으셨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복이 좌우된다. 여기서 '너'라는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집합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들을 포함한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 이 약속에 기초해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선대한 자들이 복을 받겠지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개인이든, 집단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대한 자들은 복을 받고, 경멸한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수 2:12; 시 137; 암 1:3-2:3 등).[29]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훼방하는 세력으로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대적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계시역사적으로 새언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무리인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세력은 사탄의 편에 서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다음 문장에 나오는 약속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성취하기

---

26) Wenham, *Genesis 1 – 15,* 277.

27) Fruchtenbaum, *The Book of Genesis*, 242.

28) G. von Rad, *Genesis*,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3), 161.

29) 특히 아모스의 서론에 해당하는 열국에 대한 예언심판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학대한 주변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기초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신득일, 아모스의 열국에 대한 심판, 『고신신학』 13호, 2011, 259-285.

위한 것이다.

3) 확대된 범위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 문장에서 절정을 이룬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해 진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민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미쉬파하’(הַמִּשְׁפָּחוֹת)는 넓은 개념을 가진 말로서 종족, 지파, 민족을 포함한다.[30] 이것은 확대된 단위의 가정에서 큰 민족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족이라고 하나다면 이 약속은 우선 창세기 10장에 언급된 칠십 민족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인종과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모든 민족집단에 적용된다.[31] 가끔 ‘복받다’는 동사를 재귀태로 번역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수동태로 번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32] 이 문장에 주어가 없지만 복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스스로 창출해 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원적으로나(무릎을 꿇다),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나 한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너를 통하여’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인데, 같은 내용의 약속이 담긴 다른 본문에서는 좀 더 넓은 표현을 쓰고 있다. 창세기 22:18에는 “네

---

30) *HALOT*, 651.

31) Battett은 어떤 인구 집단이 여섯 개의 한정된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인종, 피부색, 민족의 기원, 국적, 문화와 언어. Cf. H. Peskett & V. Ramachandra, *The Message of Mission* (Leicester: Inter-Varsty Press, 2003), 102.

32) 재귀태로 번역하는 것(they will bless themselves in you)은 히브리 성경 안의 의미를 지니고, 수동태(they will be blessed through you)는 이 약속이 신약에 적합한 의미로서 서로 구별된다. J. Bailey Wells, *God’s Holy People: A Theme in Biblical Theology* (JSOTSS 30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205-6.

씨를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고 했다. 창세기 26:4에는 "네(이삭) 자손을 통하여..."라고 했고, 창세기 28:14에는 "너(야곱)와 네 자손을 통하여..."라고 했다. '씨'라고 할 때 이 씨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지만 문맥상 집합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백성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미래에 다른 나라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한 복의 중재자가 된다고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중심이 되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행동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백성은 저주 받았고, 이스라엘을 선대한 백성은 복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부름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역사는 끝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셈이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생각하게 된다. 창세기 본문은 어떻게 복이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선교를 통한 인류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갈 3:8). 이것이 새 언약시대에는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선교적 동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이미 성취되어서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큰 민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유지되고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아브라함의 소명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약속은 복으로 구성되었다. 그 복은 타락한 인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은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새 언약 시대에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천하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다. 즉 이 약속은 선교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뜻이다. 인류 타락으로 말미암아 초래한 저주에서 벗어나 새 생명의 선물을 누리는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 약속이 암시하는 강한 선교적 동인이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제시한다(갈 3:14).